

경우, 당일 관광객보다 체류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광양시의 관광시장은 계절별로 보면 하계집중형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시설 및 관광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휴식·휴양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제5절 정보통신

1. 우편시설의 변천과정과 분포현황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우편업무가 시작된 것은 강화도조약 이후로, 우편업무를 담당한 우체국의 기원은 1884년(고종 21)에 설치된 우정총국(郵政總局)이다. 우정총국의 설립으로 기존의 역참제에 의해 이루어지던 전근대적인 통신업무가 사라지고 근대우편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국 17일 만에 갑신정변의 발발로 우정총국은 폐쇄되고 이후 10년 동안 다시 역참제에 의한 통신업무가 계속되었다.

그후 1895년(고종 32) 6월 통신국 소속으로 24개의 우체사(郵遞司)가 설치됨으로써 근대적인 우편업무가 다시 시작되었다. 1895년 7월부터 서울과 인천간에 우편업무가 다시 시작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우편사업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근대적인 우체국은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다. 1895년에 서울과 인천우체사 등 8개 우체사가 신설되었고, 다음해인 1896년에는 나주우체사 등 16개 우체사가 속속 개설되었다. 전남지역에서는 나주에서 최초로 우체사가 문을 열었고, 이듬해인 1897년 12월에는 무안(목포)에 무안우체사가 개설되었고, 나주우체사가 광주로 이설되었다.

그리고 전라남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나주우체사는 광주로 이설되었다. 그리고 1902년에 들어와 장흥지방에 광주우체사 장흥지사가, 제주에는 제주우체사가 각각 설치되었다. 그 후 1898년에는 전국에 임시우체사를 설치함으로써 전국적인 우편망을 구축하였는데, 전라남도 지방에는 그 해 6월 1일을 기하여 우체사가 없는 각 군지역에 임시우체사가 일제히 개설되었다. 광양지역은 다른 시군에 비해 비교적 늦게 임시 우체사가 개설되



1906년 12월에 임시우체사가
정식의 '광양우체소'가 출범하
면서 광양지역의 근대적인 우
편 서비스가 개막되었다.

었다. 일제의 식민시대 기간에 우체사는 지속적으로 확산되었고, 해방되던 해 광주·전남지방의 현업기관수는 99개국으로 일제시대 기구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그 이듬해인 1946년 재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3개 우편국을 축소하여 96개 우편국이 되었다.

그리고 1961년말 우리나라의 우체국의 수는 771국에 불과하였는데 동년 8월 별정우체국설치법을 제정하여 농어촌지방에 별정우체국을 대거 설치함으로써 1972년에는 1,884국으로 대폭 증설되었던 것이다. 전남지방의 경우에도 1961년말 우체국수 102국에서 1972년에는 280국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별정우체국의 대량설치에 힘입은 것이었다. 별정우체국은 별정우체국설치법이 공포된 1961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는데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1962년에 23국이 설치된 후 해마다 설치수가 증가하여 1966년에는 126국이 되었다. 이는 1면 1국주의의 달성이라는 단순한 수량적 개념보다는 도시와 농촌간의 통신시설을 균형있게 제공하여 국민에 대한 통신 이용의 혜택을 골고루 제공할 수 있다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광양지역의 임시우체사는 1905년 6월 6일 당시의 광양읍 읍내리에 설치되어 광양지역의 근대적인 우편업무를 관장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1906년 12월에 임시우체사가 정식의 '광양우체소'가 출범하면서 광양지역의 근대적인 우편 서비스가 개막되었다.

1906년 개설된 광양우체소는 1938년 9월 27일 광양우편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당시의 광양군 광양읍 읍내리 102-2번지에 설치되었다. 1949년 8월 13일 광양우체국으로 명칭이 개칭되었다. 1949년의 우체국 명칭변경은 당시에 새로운 정부조직법이 제정되고 지방체신관서설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우편소의 명칭이 우체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체신관서설치법에 전국의 1면(面) 1국(局) 우체국 개설 원칙에 따라 우체국의 숫자는 급속히 증가되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의해 광양지역의 옥곡면과 진상면을 비롯한 면지역에도 우체국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순반란사건과 6.25동란을 거치면서 광양지역의 우체국 시설은 많이 파괴되었고, 통신시설은 거의 마비상태였다.

광양우체국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49년 광양읍 읍내리 120-2번지에 위치했던 광양우체국은 1966년 10월 28일 광양읍 읍내리 113-10번지로 이전하였고, 1972년 8월에는 광양전신전화분실의 신축공사가 행해

졌다. 1985년 4월 광양읍 목성리 724번지로 이전하였고, 1992년 8월에는 광양우체국의 청사를 3층으로 증축하였다. 그리고 1997년 10월 6일 광양읍 목성리에 위치하던 광양우체국이 중동 1312-1번지에 새로운 청사를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광양우체국의 청사가 광양읍에서 동광양의 신시가지인 중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광양읍 목성리에 위치하던 기존의 광양우체국은 광양목성우체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우편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1906년 광양읍 읍내리에 광양우체서가 개설된 이후 광양지역의 우편시설은 크게 변화하였다. 1949년 전국의 면 단위에 우체국을 개설하기로 규정한 지방체신관서설치법에 의해 면사무소 소재지에 우체국이 개설되면서 1965년까지 7개의 우편시설이 광양지역에 입지하였다. 그리고 1970년에는 9개소, 그 이후 1985년까지 9개소의 우편시설이 개설되었고, 동광양지역의 도시화와 공업화의 영향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되면서 1990년에는 12개로 우편시설의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14개로 다시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우편시설이 증설된 곳은 주로 동광양지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1995년 이후 우편취급소가 1개소 증설되었고, 우편류취급소 또한 1970년의 91개소에서 1995년 145개소, 2000년 117개소 각각 변화되었다. 2000년 현재 광양시의 우편시설은 총 15개소로 일반우체국이 8개소, 별정우체국이 6개소, 우편취급소가 1개소 등이다. 별정우체국 6개소는 면 단위에 위치한 옥룡, 봉강, 진상, 진월, 다압우체국이 이에 해당한다. 1960년대 초에 1면 1개 우체국 설치의 목표 아래 농어촌 지역에 설립된 별정 우체국은 지역주민 중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가 청사시설 등을 갖춘 후 국가로부터 체신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우체국으로써 여기에 근무하는 국장 및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나 그 책임과 임무는 일반 우체국과 동일하다.

우편 사서함시설 또한 매년 증가하여 1991년 60개소에서 1996년 61개소, 2001년 80개소로 증가하였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 우체국 취급업무의 다양화와 업무의 전산화, 자동화, 기계화 추진 등으로 우체국의 지역정보센타화, 종합봉사 창구화를 지향함에 따라 우체국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증가하는 우체국 이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체국 창구망에 대한 지속적인 증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현재 광양시의 우편 시설은 총 15개소로 일반우체국이 8개소, 별정우체국이 6개소, 우편취급소가 1개소 등이다.

〈표1-81〉 광양시 우편시설의 변천(1965~2000)

연 도	우체국					우표류취급소
	합계	일반국	분국	별정우체국	우편취급소	
1965	7	7	-	-	-	-
1970	9	3	-	6	-	91
1975	9	3	-	6	-	68
1980	9	3	-	6	-	-
1985	9	3	1	5	-	-
1990	12	6	-	6	-	-
1995	14	6	1	6	1	145
2000	15	8	-	6	1	117

자료 : 광양군, 광양시, 통계연보

2002년말 현재 광양시에서 우편서비스를 우체국의 분포를 살펴보면(<표1-82>참조), 14개의 우체국과 1개의 우편취급소가 있다. 광양지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광양목성우체국을 비롯하여 각면에 1개의 우체국이 분포하고 있다. 광양읍에는 광양목성우체국, 광양덕례우체국, 광양읍 인서리에 인서우편취급소 등 2개의 우체국과 1개의 취급소가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동광양지역에는 광양우체국, 광양광영우체국과 광양금호우체국, 광양제철우체국, 광양태인동우체국, 광양성황동우체국 등 6개의 우체국이 입지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1-82〉 광양시 우체국의 현황 2002년말 현재

명칭	우편번호	소재지
광양우체국	545-010	광양시 중동 1312-1
광양목성우체국	545-803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724
광양광영우체국	545-870	광양시 광영동 675-4
광양금호우체국	545-876	광양시 금호동 716
광양덕례우체국	545-802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56-7
광양성황동우체국	545-050	광양시 성황동 425-6
광양제철우체국	545-875	광양시 금호동 623
광양태인동우체국	545-885	광양시 태인동 1650-5
다압우체국	545-861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37-5
봉강우체국	545-811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722-7
옥곡우체국	545-833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23-3
옥룡우체국	545-822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79-2
진월우체국	545-852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812-38

자료 : 광양시 우체국, 내부자료

2. 우편시설의 취급우편물 변천과정

1) 우편물 취급량의 변화

광양지역 우편시설에서 취급한 우편물 처리량은 광양지역의 인구변화, 그리고 우편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요구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광양지역에서는 1981년 이후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과 공단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우체국 신설수요가 발생하였고, 국내 우편물의 취급물동량도 동시에 증가하였다. 광양지역 국내 우편물의 물동량(접수우편물) 변화추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1-83>에 제시된 것과 같다. 일반우편물, 특수우편물, 소포 등을 포함한 우편물 총량은 1961년 228천통에서 1971년 1,034천통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1981년에는 1,876천통으로 1971년을 기준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1991년에는 5,012천통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4,981천통을 취급하였다. 1961년 이후 약 40여 년 동안 우편물 취급량은 약 2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시기별로 보면, 1980년대에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즉, 1981년 1,876천통에서 1991년 5,012천통으로 약 4,200천여 통이 증가한 것이다. 1980년대에 우편물 취급량이 급증한 것은 광양지역의 인구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광양시에 입지한 우편시설에서 취급한 배달 우편물의 처리량 또한 접수 우편물과 동일하게 1961년 이후 급증하였다. 1961년 329천통에서 2001년 16,561천통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981년 2,140천통에서 1991년 9,378천통으로 약 4.38배가 증가하였고, 1991년에서 2001년 사이에는 1.76배가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 취급우편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우편서비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요구 증대와 함께 전국적인 생활권의 확대, 그리고 광양지역 인구의 증가에 기인한다.

국내우편물의 처리량(접수 우편물 기준) 변화를 일반우편물, 특수우편물, 소포 등으로 구분해 보면, 지난 40여 년동안 소포 처리량은 약 193배로 증가하였고, 특수 우편물은 23배, 일반 우편물은 21.3배로 각각 증가하였다. 일반 우편물의 경우, 접수 우편물은 1961년 213천통에서 1971년 977천통, 1981년 1,785천통, 1991년 3,592천통, 2001년 4,543천통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 가장 많은 1,807천통이 늘어나 연평균 10.1%씩 증가하였다. 배달 우편물도 1961년 213천통에서 2001년 15,847천통으로



광양지역 우편시설에서 취급한 우편물 처리량은 광양지역의 인구변화, 그리고 우편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요구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접수우편물보다 약 3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1980년대에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	총계		일반		특수		소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1961	228	329	213	312	14	14	0.6	2
1966	542	297	333	266	26	24	2	7
1971	1,034	1,714	977	1,649	57	64	-	-
1976	1,400	1,660	1,324	1,583	69	65	7	11
1981	1,876	2,140	1,785	2,046	79	79	12	15
1986	2,299	3,592	2,144	3,387	143	174	12	31
1991	3,875	9,378	3,592	9,056	257	274	26	48
1996	4,168	9,850	3,808	9,350	326	441	34	59
2001	4,981	16,561	4,543	15,847	322	603	116	111

자료 : 광양군, 광양시, 통계연보

특수 우편물의 처리량 변화 추이를 보면, 접수 우편물은 1961년 14천통에서 1971년 57천통, 1981년 79천통, 1991년 257천통, 그리고 2001년 322천통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증가한 시기는 1966~1971년의 약 2.2배, 1981~1986년의 약 1.8배로 나타났다. 배달 우편물도 1991년 14천통에서, 1971년 64천통, 1981년 79천통, 1991년 274천통, 그리고 2001년 603천통으로 증가하였다. 배달 우편물의 증가율도 접수 우편물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1990년대에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포 우편물의 변화추이를 보면, 접수량은 1961년 600여 통에서 1981년 12천통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 116천통으로 급증하였다. 배달 소포량의 증가 패턴도 유사하다. 1996년 이후 소포처리량은 급증하여 접수와 배달 소포량이 각각 82천통, 52천통으로 늘어났다.

특히 소포 우편물의 급증은 광양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최근,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한 맞벌이 부부 증가와 복잡한 교통 환경으로 인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필요한 물품을 배달해주는 문전(door to door)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점차 편의성 추구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체국은 도시지역은 물론 도서벽지까지 전국적인 운송·배달망을 갖춘 유일한 배송기관으로서, 국내 전체 택배사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물에서 주문된

상품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배달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도시소비자에게 배달함으로써 농수산물의 판로를 지원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1-84) **광양지역 국제 우편물의 변화추이(1961~2001)** (단위: 천통)

연도	총계		일반		특수		소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1981	9	12	9	12	0.9	1.1	0.1	0.1
1986	22	17	22	15	0.3	0.6	0.2	1.1
1991	61	64	60	63	0.6	0.7	0.6	0.3
1996	24	22	23	21	0.9	0.6	0.7	0.5
2001	10	22	7	20	2.3	1.5	0.7	0.9

자료 : 광양군, 광양시, 통계연보

한편, 광양시에서 취급한 국제 우편물도 198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 우편물중에서 접수 처리량은 1981년 9천통에서 1991년 60천통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오히려 7천여 통으로 감소하였다. 배달 처리량도 비슷한 변화추이를 나타냈는데, 1981년 12천통에서 1991년 63천통으로 급증하였지만 2001년에는 20천통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특수 우편물의 접수처리량은 1981년 9백여 통에서 2001년 2천 3백여 통으로 증가하였으며, 배달처리량도 1981년 1천 1백여 통에서 2001년 1천 5백여 통으로 늘어났다. 소포 우편물도 접수량이 1981년 1백여 통에서 2001년 700여 통으로 늘어났고, 배달량 또한 거의 같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우편물은 1980년대에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1990년대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국제우편물 처리량이 국내 우편물 처리량에 비해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은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효율적 정보전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편(시장 및 packet)의 위상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e-mail 등 전기통신서비스가 우편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어 국제 우편량이 감소한 것이고,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전보 취급량의 변화

광양지역의 우편시설에서 취급한 국내전보 처리량은 1976년 이후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1996년 이후 인터넷과 전자메일의 등장



광양지역의 우편시설에서 취급한 국내전보 처리량은 1976년 이후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1996년 이후 인터넷과 전자메일의 등장으로 전보 처리량은 격감하였다.

으로 전보 처리량은 격감하였다. <표 1-85>에 지시된 것과 같이, 국내전보 처리량의 변화추이를 보면, 1976년 39,651건에서 1981년 43,801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86년 80,757건, 1991년 111,807건, 1996년 111,846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2001년에는 28,759건으로 감소하였다. 2001년 현재, 국내전보 취급량은 29,759건으로 발신전보가 897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 반면 수신전보는 96.9%인 27,862건으로 전보처리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보처리량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크게 증가하였지만, 1995년을 기점으로 전보 취급량은 감소하고 있다.

국내전보의 처리량 변화를 발신정보와 수신정보로 구분해서 변화량을 살펴보면, 광양지역에서 발신한 발신정보는 1976년 이후 199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1981년 19,112건에서 1991년 59,960건으로 약 3.13배나 늘어났다. 그러나 2001년에는 897건으로 급속히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외부로부터 수신한 수신전보는 발신전보에 비해 변화량이 크지 않다. 1976년 20,871건에서 1981년 24,689건, 1986년 49,141건, 1991년 51,847건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1년을 기점으로 처리량은 감소하여 1996년 36,054건으로 감소하였고, 2001년에는 27,862건으로 더욱 줄어들었다.

연도	합계	발신정보	수신전보
1976	39,651	18,780	20,871
1981	43,801	19,112	24,689
1986	80,757	31,616	49,141
1991	111,807	59,960	51,847
1996	111,846	75,782	36,054
2001	28,759	897	27,862

자료 : 광양군, 광양시, 통계연보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전보 처리량이 199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은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개인휴대폰의 상용화, 그리고 인터넷과 전자메일의 대중화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환경의 여건이 급격히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광양시의 국내전보 취급량이 1995년 이후 감소한 것은 전술한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광양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특징이 지역통계의 변화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전기통신 기술이 급속하

게 발전하면서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전기통신의 기능과 역할이 종래 의사소통수단에서 보다 새롭게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즉 첨단 전기통신기술은 정보의 운송을 담당할 “통신 하부기반구조”인 종합정보통신망(ISDN)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정보의 축적을 담당할 “정보 하부기반구조”인 데이터베이스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양자의 상승적 발전을 통하여 경제·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의해 전보 사용량은 1996년 이후 감소하게 된 것이다.

3. 전화시설 및 가입환경의 변화

1) 전화시설 및 가입자수의 변화

우리나라에 근대화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전기통신은 1885년 9월 28일 한성-인천간에 최초의 전신시설이 개통되면서 시작되었다. 곧이어 서울-의주를 잇는 서로전신선, 서울-부산간의 남로전신선, 서울-원산의 북로전신선 등이 잇달아 개설되면서 전국의 주요도시를 잇는 사통팔달의 새로운 기간통신수단으로 정착되어갔다. 특히 서로전신선은 청국의 전신선과 연결되어 유럽까지 통신이 가능한 국제통신업무를 수행하였다. 전화사업의 경우 1902년에 서울-인천간 전화업무가 개시됨으로서 일반인도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 가구에서 본격적으로 개인용 전화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당시의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통신사업 5개년 계획의 시행으로 국가기간망이 확충되면서 통신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다. 그후 1980년대 들어 가입전화 시설은 매년 100만 회선 이상씩 증설되었고 농어촌 전화의 자동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전국전화광역자동화의 완성으로 1,599개 통화권이 147개 통화권으로 광역화되었고, 10호 이상의 자연부락과 50인 이상이 상주하는 섬마을까지 자동식 전화가 공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전화적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1가구 1전화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1992년 말까지 1,950만 회선으로 늘어나 세계 8위의 수준에 진입하였다. 전화 보급률도 100명당 35대로 1가구 2전화시대가 되었다.



일반 가구에서 본격적으로 개인용 전화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24)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4, 「전라남도지 제14권」, 255쪽



전남지역의 전화가입자수는 특히 198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 추세도 광양지역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정보통신사업의 본격 육성, 통신시설의 확충과 고도화 등을 통한 정보통신정책에 의해 전남의 전화시설과 가입자수도 변화하였다. 1947년 전남의 전화가입자수는 3,227명으로 전국의 37,385명에 비해 8.7%를 점유하고 있다²⁴⁾. 전남지역의 전화가입자수는 특히 198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 추세도 광양지역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2001년 현재, 광양시의 전화시설 및 가입자수 현황을 보면, 전화국은 광양전화국과 동광양전화국의 2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전화의 시설수는 59,702회선이다. 전화 이용계약자의 가입자수는 총 53,546대로, 업무용이 16,892대로서 전체의 31.5%를 차지하고, 주택용이 36,225대로서 전체의 67.7%, 사업용이 429대로 전체의 0.8%, 그리고 공중전화가 1,321대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화 가입자수를 광양시 전체 가구수(2001년)와 비교해 보면, 업무용과 주택용이 53,117대로서 광양시 가구수인 43,176세대보다 많아 1가구 1전화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주택용만 대상으로 비교하면 전화가입자수는 전체 가구수(세대)의 83.9%를 차지한다.

1961년 이후 광양지역의 전화시설과 가입자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1-8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화시설수와 가입자수는 199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전화시설수에 대한 1960년대 자료는 없지만, 1976년 1,800회선에서 1981년 4,800회선으로 증가하였고, 1986년 20,512회선, 1991년 45,720회선, 1996년 53,088회선, 그리고 2001년 59,702회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은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충, 개인소득 증대에 따른 가입자수의 증가, 광양지역 인구와 세대수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화국 수 또한 1980년 이후 광양과 동광양으로 분리되어 2개의 전화국이 입지해 있다.

<표1-86>

전화시설 및 가입자수의 변화 추이(1961~2001)

(단위 : 명, 세대, %)

연도	시설수	전화 가입자수				공중전화
		합계	업무용	주택용	사업용	
1961	-	80	33	41	6	2
1966	-	312	57	255	9	2
1971	-	696	409	287	-	-
1976	1,800	1,677	797	880	-	-
1981	4,800	4,232	1,139	3,093	-	-
1986	20,512	13,289	2,936	10,353	-	239
1991	45,720	34,949	7,313	27,636	-	790
1996	53,088	44,762	12,050	32,712	-	1,452
2001	59,702	53,546	16,892	36,225	429	1,321

전화가입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화 가입자 또한 시설수에 비례하여 1961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1961년에는 업무용 33대, 주택용 41대, 사업용 6대, 공중전화 2대로 매우 비약한 가입 분포를 나타냈다. 특히 주택용 가입자를 당시의 가구수와 비교해 보면, 광양지역 전체 가구의 약 0.3%만이 전화를 보유하고, 주로 광양읍을 중심으로 전화가입자가 분포하였다. 그러나 1966년에는 314대로 증가하였고, 업무용 57대, 주택용 255대, 사업용 9대, 공중전화 2대 등으로 업무용보다는 주택용이 급증하였다. 주택용의 경우, 1961년에 비해 약 6.2배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당시의 총가구의 약 1.6%가 전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1961년의 0.3%에 비하면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이다.

1971년의 가입자 분포는 696대로 증가하였고, 가입자의 용도별 분포에서는 업무용이 409대로 주택용인 287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1976년에 역전되었다. 즉, 1976년에는 1,677명이 전화를 보유하고, 업무용이 전체의 47.3%(797명)이고, 주택용이 전체의 42.7%(880명)으로 일반 가구들이 주택용으로 전화를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1981년에는 4,232명이 가입하였고, 주택용이 전체의 73.1%를 차지한 3,093명이고, 업무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1,139명(26.9%)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용의 전화가입자는 1976년에 비해 약 3.5배 증가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급속한 신장은 정부의 전기통신 기간망의 확충사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986년에는 13,289명이 가입하였고, 업무용이 전체의 18.0%인 2,936명이고, 주택용은 10,353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2.0%를 차지하여 주택용의 가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광양전화국과 동광양전화국으로 구분해 가입자수를 보면, 광양전화국의 관할구역이 10,189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6.7%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동광양지역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996년의 가입자수는 44,762명으로 업무용이 12,050명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하고, 주택용이 32,712명으로 전체의 73.1%를 나타냈다. 그리고 2001년에는 53,546명으로 증가하였다.

광양지역의 가입자수 변화에서 전화가입자의 수가 가장 급격히 증가한 시기는 1981~1986년으로 5년 사이에 9,093대가 증가하여 1981년에 비해 약 3.1배 늘어났다. 그리고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는 2.6배, 1976년에서 1981년 사이에는 2.5배, 그리고 1971년에서 1976년 사이에는 2.4



광양지역의 전화 사용량은 1999년을 기점으로 사용량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고, 개인용 이동전화(휴대폰)의 보급과 인터넷, 전자메일(e-mail)의 대중화 등으로 전체적인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1970년대 중반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전화 가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전화 가입자수의 증가율이 이 시기에서 커다란 변화를 나타낸 것은 정부의 농어촌 전화의 자동화사업, 기간전기통신망의 확충사업에 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 전화사용과 관련된 지역환경의 변화

광양지역의 전화 사용량은 1999년을 기점으로 사용량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고, 개인용 이동전화(휴대폰)의 보급과 인터넷, 전자메일(e-mail)의 대중화 등으로 전체적인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1-87>에 제시된 것과 같이, 광양시의 전화 사용량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전화의 사용량은 1998년 약 2억 6천 6백여 건에서 1999년 3억 1백만건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3.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0년 2억 4천 2백여 건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01년에는 2억 3천 9백여 건으로 감소하였다. 공중전화의 사용량도 1998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였는데, 1998년 약 2천 6백 9십여 만건에서 1999년 2천 3백 4십여 만건으로 줄어들었고, 2000년에는 2천여 만건으로, 그리고 2001년에는 1천 7백 3십여만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국내 통화의 요금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 약 130억원에서 1999년 14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13억원으로 감소하였지만 2001년에는 15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표1-87>

전화사용량의 변화 추이(1998~2001)

(단위: 도수, 건, 천원)

연도	국내전화(도수)			국제전화(도수)		
	일반전화	공중전화	요금	일반전화	공중전화	요금
1998	266,160,496	26,973,140	13,063,888	169,306	-	448,651
1999	301,441,305	23,472,780	14,351,886	153,681	-	534,189
2000	242,487,366	20,968,201	11,855,497	117,232	-	321,302
2001	239,587,522	17,359,073	15,791,651	331,272	-	331,272

자료 : 광양시, 2002, 광양통계연보

한편 국제전화의 사용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전화 사용량은 1998년 169,306건에서 1999년 153,681건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117,232건으로 감소했지만, 2001년에는 331,272건으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일반전화의 사용량이 연도에 따라 약간의 증감이 있

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998년을 기준으로 2001년에는 약 2배의 증가를 나타냈다. 사용요금은 1998년 약 4억 4천여 만원에서 1999년 5억 3천여 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 3억 2천여 만원, 2001년도 비슷한 3억 3천여 만원으로 감소하였다. 국제전화 사용요금의 지속적인 감소는 사용량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국제전화 통화요금의 인하에 따른 감소라 할 수 있다.

4. 행정전산망의 보유 및 변천과정

1) 행정전산망 건설 및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행정업무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도입, 사용된 것은 196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IBM 1401을 도입하여 사용한 것이 행정업무 전산화의 전래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행정기관 전산화는 1967년 9월 과학기술처 장관을 장으로 하고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자계산 조직개발조정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정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1975년 대통령의 총무처에 대한 ‘행정전산화 추진에 관한 지시’에 의거 총무처는 기구를 수립하고 기본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1977년 기본 계획 시안을 마련하였고 1978년 정책화 되었다. 1978년 2월 ‘제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1978-1982)’이 실시되었으며 이어서 1982년 1월 대통령령 제10709호로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규정’이 제정되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전산화 기본 계획의 수립 및 부처별 연간 세부 실천 계획의 조정 등이 규정되었다. 또한 1982년 12월에는 ‘제2차 행정 전산화 기본계획(83-86년)’이 수립되었다.

1980년대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통신망의 하나는 국가기간전산망이었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공공기관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1980년대 초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국가정책사업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전산화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국내 정보산업의 육성에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도 가지고 있었다. 이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행정전산망·교육연구전산망·금융전산망·국방전산망·공안전



1980년대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통신망의 하나는 국가기간전산망이었다.

산망 등 5개 기간전산망별로 추진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방대한 행정전산망사업은 종래 부처별·지역별로 흩어져 있던 행정업무를 종합하여 전산화하고, 행정을 과학화하고 국민편익을 제고시킨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했다. 1991년까지 특히 과급효과가 큰 6개 업무의 전산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6개 업무는 주민·부동산·자동차·고용·통관·경제통계 등이다. 교육연구전산망사업의 목적은 학술 및 연구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비한 인재양성 및 원활한 컴퓨터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금융전산망사업의 목표는 지급결제수단을 자동화함으로써 금융 선진화와 국제화를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공동전산망을 구성하여 1988년 7월에 현금자동인출 공동망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1988년 4월에는 음성정보서비스, 1989년 12월에는 타행환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방전산망과公安전산망도 관계 기관에 의해 각각 추진되었다.

한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제1단계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군구 행정정보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전산망 시스템 보완 및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1개 행정업무 중 우선순위에 따른 10개 주요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하고, 특히 업무별로 구축되어 있는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민원 및 행정업무의 혁신을 위하여 시스템간 공동활용 가능토록 전환하였다. 또한 민원의 종합창구인 시군구 민원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해서 거주지 무관서비스 및 무인민원 발급, 원스톱 서비스의 확대 등을 꾀했다.

그리고 제2단계 개발사업(2000. 11~2002. 12)에서는 국가행정정보화 정책에 부합된 지방자치정보화 추진,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기반마련, 시도 및 중앙부처와의 연계 추진으로 수직적 정보공유 기반 확보, 주민등록 및 지적 시스템의 성능개선으로 정보공동활용 기반 확대구축, 기존 운영 정보시스템을 연계 활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행정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국가 행정정보화 차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전자정부 구현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토대로 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종합정보체계 구축하였고, 인터넷 민원서비스도 확대 실시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정전산망 기반 구축 및 행정정보화 사업에 의해 광양시의 행정시스템도 개선되었고, 관련장비가 도입되면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2) 광양시 행정전산망과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과정

광양시의 행정전산망을 비롯한 정보화사업의 기본방향은 정보화에 대비한 정보통신시설의 확충이다. 컨테이너 부두의 가동, 정보화의 진전 등에 대비하여 배후지원단지 내에 ISDN, VAN, LAN 등 첨단정보통신망시설을 확충하는 것, 공업단지와 컨테이너 부두 및 이들의 배후지원단지에 입주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확충과 더불어 이를 운용할 통신업, 컴퓨터와 관련산업, 자료조사 처리, 제공업 등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현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선로는 단계적으로 지하로 매설하고, 앞으로 설치할 선로는 모두 지중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거하여 광양시의 정보화사업은 추진되었다.

이런 정보화 사업에 의해 광양시의 행정 전산장비 또한 확충되었다. <표 1-88>에 제시되어 있는 것 같이, 광양시의 행정 전산장비는 1995년부터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개인용 컴퓨터(PC)의 보유 과정을 살펴보면, 1995년 401대에서 1997년 697대로 증가했고, 1999년에는 844대가 되었다. 그리고 2001년에는 1,184대로 증가하였다. 1995년을 기준으로 3.0배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광양시가 행정전산용으로 보유하고 개인용 컴퓨터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주민용 58대, 자동차행정용 6대, 일반 업무용 986대, 교육용 134대 등으로 시정과 관련된 업무용도의 컴퓨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런 행정사무와 관련된 업무용 컴퓨터의 보유는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증가세는 정부의 행정전산망의 확충과 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광양시의 행정전산망을 비롯한 정보화사업의 기본방향은 정보화에 대비한 정보통신시설의 확충이다.

<표1-88>

광양시 행정전산장비(PC)의 보유 현황

연도	합계	행정전산망용(PC)				일반업무용	교육용
		소계	주민	자동차	부동산		
1995	401	86	75	5	6	280	35
1997	697	99	87	6	6	570	28
1999	844	81	70	5	6	763	-
2001	1,184	64	58	6	-	986	134

자료 : 광양시, 2002. 광양시통계연보

한편, 청사별 행정전산망용 PC의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군청이 838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고, 광양읍 57대, 광영동 39대, 금호동 36대, 옥곡면 32대, 옥룡면 31대 등의 순으로 <표1-89>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일반 업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1-89) 광양시 청사별 전산장비(PC) 보유 현황(2001)

구 분	합계	행정전산망용(PC)				일반업무용	교육용
		소계	주민	자동차	부동산		
본 청	838	9	3	6	-	767	62
광양읍	57	9	9	-	-	48	-
봉강면	21	4	4	-	-	14	3
옥룡면	31	4	4	-	-	17	10
옥곡면	32	4	4	-	-	28	-
진상면	30	4	4	-	-	16	10
진월면	20	4	4	-	-	16	-
다압면	20	4	4	-	-	13	3
골약동	15	4	4	-	-	11	-
종마동	23	6	6	-	-	17	-
광영동	39	5	5	-	-	14	20
태인동	22	3	3	-	-	13	6
금호동	36	4	4	-	-	12	20

자료 : 광양시, 2002. 광양통계연보

정부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 의거하여 광양시에서도 행정전산망이 확충되었다. 시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 2월에 주전산기를 신규 도입하여 개시하였다. 또한 2,056,969건의 기존 행정자료를 입력하여 2000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1·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단계는 2001년 12월까지 지적, 보건복지, 환경, 지역산업, 농촌, 민원행정 등 6종의 신규업무와 주민, 차량, 세정, 건축행정 등 4종의 연계된 개발업무 시스템을 보급하여 현재 10개 업무가 전산처리되었다. 또한, 2001년부터 호적행정전산화를 통해 시범운영을 개시했고, 건축행정 및 위생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전산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2002년말까지 지역개발, 도로교통, 상하수도, 문화체육, 축산, 수산, 산림, 민방위, 내부행정 등 9종의 업무와 재난방재, 호적(시범 구축 운영) 2종의 업무가 진행되었다.

광양시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전자결재시스템 표준화 프로그램도 구축하여 시행하였다. 전자게시판 자료와 전자우편의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시스템을 1996년 10월에



광양시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전자결재시스템 표준화 프로그램도 구축하여 시행하였다.

신규 도입·운영하고, 1997년 12월에 본청에 한하여 공문서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으며, 1998년 2월에 1·2청사로 문서유통을 확대하였으며, 2000년 6월에 청내 종합전산망인 LAN망의 구축으로 1·2청사만 시행되던 문서유통의 당일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전자결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서식 및 운영일지, 공공근로 일지, 토지이용결의서 등 전산서식 15종에 대하여 자체개발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으며, 1998년 10월과 2000년 12월 2차례에 걸쳐 시행된 인증시험에서 전자문서유통 표준을 확정함에 따라 정부표준 규격에 적합한 전자문서시스템을 2001년 6월에 신규 도입 운영하였고, 2001년 12월말 현재 광양시정과 관련된 전자문서 유통율은 약 90%에 달하고 있다.

광양시는 일반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24시간 쉽게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민원업무를 요청하여 처리함으로써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시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행정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1999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6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인터넷 웹서버와 방화벽을 구축하고, 민원서비스를 홈페이지와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으로 사용하던 전자문서시스템을 인터넷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웹버전으로 변환하고 웹메일을 전자문서의 우편과 연계하여 활용하였고, 인터넷상에서만 제공되던 자치법규의 조회 및 검색을 전자문서시스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보안 인증을 받은 K4등급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하였으며, 민원서비스를 홈페이지 연계 운영하여 제증명 신청과 각종 민원안내 서비스, 공시지가 열람, 공연강좌, 구인구직, 문화공간,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종합전산망(LAN)의 이용을 사업소, 읍·면·동으로 확대구축하고, 인터넷 및 전자문서시스템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양시 종합전산망 구축공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 4월 10일부터 2000년 6월 18일까지 70일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사업비 이억 일천 이백 만원을 투입 4층 전산실에 라우터, 백본스위치, 스위칭허브 등을 설치 본청 LAN망 전송속도 10Mbps에서 100Mbps로 향상시키고, 읍면동에 2,048Mbps급 초고속국



종합전산망(LAN)의 이용을 사업소, 읍·면·동으로 확대구축하고, 인터넷 및 전자문서시스템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양시 종합전산망 구축공사를 실시하였다.

가망으로 WAN망을 구성 1인 1LAN회선 설치 전자결재,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00년 6월 18일에 준공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킹 및 바이러스의 침투로 각종 행정자료의 위조 및 변조의 가능성이 증가되고, 사이버 테러가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행정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보안대책의 필요성에 의해 네트워크 보안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외부 해커들로부터 행정자료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하여 1999년 2월에 K4등급인 침입차단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1년 4월에 국가정보원의 보안인증을 받은 K4E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외부 침입차단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이중보안을 위하여 자체 외부망을 해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외부와 연결할 수 있도록 행정전산망과 연결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2002년 1월에 국가정보원의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외부 해커들의 침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침입탐지시스템과 암호화 시스템, 보안취약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보안시스템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에 우선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실에서 침입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침입탐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하면서 보안취약 여부를 월 1회 이상 수시 점검하는 체제를 확보하였다.

5. 인터넷 환경 구축과 시민정보화 교육

1) 광양시 인터넷 환경의 구축

인터넷은 기존 산업의 전부문에 걸쳐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그 영역도 확장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지식기반경제에서 인터넷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인터넷산업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여 거시적인 안목을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02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872만 명을 넘어서 2001년 6월말의 625만 명에 비해 3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이 가정 가입자로 우리나라 총 1,439만 가구수의 60.6%에 해당하는 2가구당 1.2가구꼴로 초

고속인터넷을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인터넷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양시에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전자메일(e-mail)의 보급 등, 광양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등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강화시켰다. 광양시 홈페이지는 1996년 12월말부터 1997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구축 운영함으로써, 사이버상에 첫발을 들여놓았으며, 인터넷의 지속적인 시대변화와 사용자의 꾸준한 변화 요구에 따라 1999년 1월과 2000년 12월, 2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갱신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철강의 도시, 항만의 도시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21세기에 외국인의 방문을 위하여 영어와 일어를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판 홈페이지를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그후에 중국어판을 추가로 구축하여 현재 광양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국문, 영문, 일문, 중문으로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지식정보화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각종 시정소식, 공지사항, 민원처리사항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즉시 알림으로써 시민들이 행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예산의 절감효과를 꾀하기 위해 인터넷 E-mail을 이용한 각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만들었다. 인터넷 E-mail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웹메일 시스템을 2001년 1월에 구축하여 시의 각종 행사, 반사회보 등을 메일로 발송하여 시의 행정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2년 1월에 메일자료의 바이러스 예방과 상호간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웹메일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문화의 확산으로 각종의 유해 사이트가 증가하고, 그 피해가 날로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서 2대 이상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정보사냥대회’ 실시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기도 했다.

2) 시민정보화 교육

시민정보화 교육이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정보통신의 기술발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컴퓨터활용능력 향상으로 지역정보화 촉진기



인터넷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양시에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전자메일(e-mail)의 보급 등, 광양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등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강화시켰다.



정부의 정보화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광양시에서도 자체적인 시민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반을 조성하여 인터넷 등 우리생활에 유용한 정보화기술을 습득시켜 일상 생활과 생업에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하에 지자체들이 실시하는 시민교육이다. 시민정보화 교육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보화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광양시에서도 자체적인 시민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주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매년 30명~60명씩 1주~2주 정도의 기간으로 컴퓨터의 기본, 워드, PC통신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농한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읍면동 컴퓨터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98년 7월에는 농업정보 수집용 컴퓨터 보유가정을 방문하여 PC통신 활용교육 및 PC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광양시에서는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의 읍면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알맞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주민이 즐겨 찾고 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광양시에는 분산되어 있는 보건지소 및 농민상담소를 농촌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통합하였고,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보건지소는 물리치료실 및 건강체크 코너를 설치하고, 농민상담소는 농업정보센터로 운영되어 많은 효과를 거두었고, 이런 업적은 2002년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소개되기도 했다.

6. 광양시의 정보화 시범마을

1) 정보화 시범마을의 추진과정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어촌 그리고 산촌과 같이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컨텐츠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발전을 이룩하고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첫째, 도시, 농어촌 등 정보소외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이용환경을 구축하

여 정보접근 기회를 높이고, 둘째, 주민의 실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를 구축·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셋째는 지역 주민의 정보생활화와 실질적인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견해 볼 때 정보화 수준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농·어촌마을은 PC 등의 정보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의 도시 진출, 낮은 소득수준 등으로 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리적 공간은 넓지만 정보통신수요자가 적은 농·어촌지역에 통신서비스업체들이 고가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원격통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야할 지역이 정보화시대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보화시대에 농촌지역도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전달 매체와 수단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며 제반 사회, 경제, 문화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정보화 시범마을은 정보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정보화의 새로운 사업에 해당한다.

이런 목적에 의해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공동의 주제(테마)가 있고, 특정분야의 작목반이 활성화되어 인터넷 활용도 및 필요성이 높아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지역, Off-line 상의 산물을 On-line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주민의 정보생활화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대상마을 주민의 다수가 정보화에 관심이 있고 “정보화지도자”가 있어 자발적으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는 물론 해당 자치단체의 추진의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광양시에는 2001년 지정된 진월면 송현마을 비롯하여, 2002년에 추진한 진상면 백학동마을,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옥룡면 추산리의 도선국사마을 등이 있다. 광양에서 정보화 시범마을로 가장 먼저 지정되었고,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이 바로 진월면 송현마을이다. 송현마을의 지정과정을 보면, 광양시 또한 2001년 3월 26일 전라



정보화 시범마을은 정보기반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정보화의 새로운 사업에 해당한다.



광양에서 정보화 시범마을로 가장 먼저 지정되었고,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이 바로 진월면 송현마을이다.

남도(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화시범마을조성계획이 시달되어 진월면 송현마을을 지정받기 위해 2001년 4월 6일 전라남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전라남도는 우리시 등 15개 시군의 정보화시범마을조성 계획서를 평가하여 우리시와 목포시, 신안군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년 5월 14일 현지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시 진월면 송현마을 등 전국에서 19개 마을이 2001년 5월 29일자로 행정자치부지정 정보화 시범마을로 최종확정 발표되었다.

2001년 5월 광양시 진월면 송월마을이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됨에 따라 2001년 6월 25일 송현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주민회의를 개최하였고, 6월 29일 광양시지역 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8월 8일 진월면 진월남초등학교 월길분교에 임시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여 8월 13일 부터 마을주민 196명을 대상으로 1일 2회 1기당 10시간 기준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지원협의회, 정보화 시범마을지원실무단구성, 정보화지도자 위촉, 총162가구의 작목반원중 111가구를 대상으로 컴퓨터 보급 대상가구의 확정,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센터건축공사를 추진 등의 일련의 가정을 통해 2001년 12월 24일 송월정보센터가 준공되어 개소식을 가졌다.

광양시에는 3개의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다. 이들 시범마을 중에서 최초로 지정된 송월마을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의 농산물을 직거래함으로써 농가소득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 그리고 늦게 지정된 진월면의 백학동마을은 수려하고 전원적인 지역의 자연적 경관, 특히 어치계곡을 중심으로 녹색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옥룡면의 도선국사마을(상산마을)도 테마체험과 민박을 통해 지역의 명소화를 꾀하고 있다.

2) 광양 최초의 정보화 시범마을, 진월면 송월마을

광양 최초의 정보화 시범마을인 송월마을은 진월면 송금리와 월길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6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민은 310가구에 875명이다. 자연부락으로는 금동, 신송, 송현, 대리, 가길, 중도마을이 속한다. 송월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광양 최초의 정보화 시범마을인 송월마을은 진월면 송금리와 월길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6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민은 310가구에 875명이다.

있으나 다른 농촌마을과는 달리 젊은 청년들이 귀농하여 고소득을 창출하는 신개념의 농촌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송월마을은 광양시청에서 북동쪽으로 약 20여 km 떨어진 지역으로, 섬진강을 경계로 하동군과 연결하고 있으며, 마을 옆으로는 남해고속도로가 통과하여 대도시로의 산물 직송이 매우 용이하다. 매년 3월이면 위쪽마을에서 봄의 첫 소식을 알려주는 섬진강 매화축제가 열리고, 매년 9월이면 아래쪽 마을에서는 청정한 광양만의 수역에서 잡히는 전어를 주제로 하는 전어축제가 열려 볼거리와 먹거리가 아주 풍성한 마을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 섬진강과 온난·다습한 기후, 풍부한 일조량, 사질 양토의 우량 토양 등으로 시설원에 재배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어 섬진강 청정 시설채소가 마을의 주요 특산물이다.

지역 주요산물(품)에는 양상추, 애호박, 수박, 오이, 토마토, 배, 재첩(깻조개), 매실, 밤, 단감 등이 있으며, 특히 배, 토마토, 매실, 양상추, 단감 등은 송월마을이 생산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이다. 그리고 이런 농산물은 송월마을에 조직된 9개 작목반 162명의 회원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송월마을에 조직된 작목반은 <표1-90>과 같다. 송월마을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 중에서 양상추는 비옥한 사질양토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일조량, 청정 섬진강의 깨끗한 물이 잘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자라며, 무가운·유기농 재배로 신선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청량감이 뛰어나 전국 최고의 양상추로 각광받고 있으며, 연간 60만 상자를 생산하여 전국 최다의 생산지 중의 하나이다.

송월마을 작목반 현황(2003)		
구분	대표자	회원
송월양채작목반	공태룡	24
청정양채작목반	조무현	
송금수박작목반	김현홍	
진월 배 작목반	류지열	
광양유리온실영농법인	김수성	
광양중도양채영농법인	김성태	
섬진강청정과채영농법인	서재삼	
섬진강청정채소영농법인	김상석	
광양사계절유리온실영농법인	서재두	5

또한 섬진강청정과채영농법인에서 생산하는 송월마을 애호박은 우수한 자연재배 조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여 농협 하나로 마트로

많이 출하되고 있으며, 외관적으로도 상품성이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약 870톤에 이른다. 전남에서 최초로 일본으로 수출된 수박은 연간 약 2,775톤을 생산하며, 오이는 연간 268톤, 토마토 590톤, 배 270톤 등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1-96 : 송월마을 정보센터

송월마을을 정보화 시범마을로 조성한데 들어간 비용은 약 10억여 원에 이르며, 초고속 광통신망을 설치해 비롯하여 가구별로 ADS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111가구에 PC가 보급되어 있으며,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등 여러 부분에 투자했다. 송월마을 정보센터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정보화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이다. 송월마을 정보센터 (사진1-93 참조)에는 컴퓨터 10대, 스캐너, 칼라 프

린터, 레이저 프린터 각 1대, 빔프로젝트, DVD 플레이어, TV 각 1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1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마을 사람들의 이용율이 매우 높다. 이 마을은 2004년부터 자율적으로 마을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월 회비와 함께 전자상거래 판매금액 중의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확보하고 있다.

광양시 최초의 정보화 시범마을인 송월마을은 2002년 11월 20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전국정보화마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송월마을은 마을 홈페이지(<http://sw.invil.org>)인 '전남광양송월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배, 감나무밭을 주말농장으로도 운영하여 짭짤한 수익도 올리고 있다. 특히 송월마을에서는 전화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 지역특산품의 주문을 받아 직거래 판매를 실시함으로써 높은 가격으로 농가소득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을에 있는 진월남초등 월길분교는 조선일보사가 운영하는 '도·농 청소년교환학교'이다. 송월마을의 성공사례는 조선일보(2002년 12월 26일자)에서 「지방속으로」 광양 송월마을 "정보화로 부자촌 됐어요"라는 제목으로 취재가 되기도 했다.

3) 진상면의 백학동 마을

백학동 마을은 행정구역상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황죽리, 어치리의 12



광양시 최초의 정보화 시범마을인 송월마을은 2002년 11월 20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전국정보화마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개 마을(비촌, 평촌, 탄치, 지계, 외회, 내회, 어치, 죽림, 신전, 웅동, 신황, 구황)을 합하여 일컫는 이름으로 50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취락지역이다. 백학동은 광양시청에서 58번 국도를 타고 동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지역으로 해발 1,218인 백운산의 4대 자연발생유원지 중 하나인 어치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1-97 : 백학동

백학동의 지리적 위치는 북위 35° 1' ~ 35° 7' 동경 127° 9' ~ 127° 5' 에 해당하며,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옥곡 IC로 나와서 다압(하동)방면으로 국도 2호선과 지방도 58호선을 이용하면 옥곡 IC에서 백학동까지 약 20분이 소요된다. 진상면 황죽리 죽전마을(63세대, 170명), 구황마을(62세대, 172명), 웅동마을(26세대, 77명), 신황마을(67세대, 177명), 어치리 어치마을(67세대, 210명), 지계마을(56세대, 161명), 회두마을(29세대, 99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학동은 예로부터 지리산의 청학동과 쌍벽을 이루는 백학동은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맑은 수어호 위로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며 우뚝 솟은 백운산의 억불봉은 수려한 경관을 제공한다. 특히 어치계곡은 크고 작은 폭포와 숲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한낮에도 이슬이 맺힐 만큼 시원한 오로대와 15M 높이의 장엄한 구시폭포는 여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특산물로는 백운산 기슭에서 자생하는 최고 품질의 ‘밀시감’을 깎아 백운산 고지대 청정지역에서 위생적으로 말린 ‘백운꽃감’과 도선국사의 전설을 간직하며 신비의 약수로 불리는 ‘백운산 고로쇠’, 고향의 향수가 한껏 느껴지는 ‘백운 고사리’가 유명하다. 또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매실과 밤, 단감 등이 많이 생산되며, 두릅, 초피, 토란대, 표고버섯, 도토리묵 등도 특산물이다. 특히 웅동은 1905년 미국인 오기면(吳基冕)이 웅동에 들어와 웅동교회를 세우고 선교활동을 시작한 곳으로 광양에서는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파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백학동의 주민정보센터는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238-1번지에 위치해 있고, 2003년 4월 29일 연면적 65.15㎡, 수용인원 11명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e-mail : kuh7411@invil.org)하고 있다. 센터에 잇는 주요 장비 및 보유시설로는 컴퓨터 및 책상(의자) 각 11조,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 스캐너, 칼라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각 1대, 빔 프로젝터, DVD 플레이어,



백학동마을은 자체적인 인터넷 홈페이지 (<http://baekhakdong.invil.org>)인 '전남광양백학동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VTR 각 1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1대 등이 있다. 또한 백학동마을은 자체적인 인터넷 홈페이지 (<http://baekhakdong.invil.org>)인 '전남광양백학동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백학동의 특산물인 꽃감과 밤을 판매하고 있고, 어치계곡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토대로 그린투어를 실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다.

4) 옥룡면의 도선국사마을



사진1-98 : 도선국사마을(상산)

도선국사마을은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양산에 위치한 마을로 백운산 자연휴양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곳 양산마을인 옛이름은 산내(살래)라고 불리며, 이곳 주민들은 상산이라고 부른다. 산내(상산)는 1789년쯤부터 부르던 이름으로 일제 시대에 아래에 위치한 중산과 합하여 행정상 양산이라 불리우며, 주민은 총 60여 세대로 밤, 감, 매실, 벼, 보리,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도선국사마을은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도선선차 체험행사, 민박, 마을장터, 테마기행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 특히 민박집에 대한 인터넷 정보가 잘 구비되어 있다. 도선국사마을에서는 독자적인 홈페이지 (<http://dosun.go2vil.org>)인 '광양도선국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전술한 진월면 송월마을에 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주민소득증대사업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민박을 활용한 프로그램운영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양산마을(도선국사마을)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은호)가 중심이 되어 마을의 정보화와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집필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이정록